

일주문



동원조사 탄신 제116주기 봉찬법회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7월 14일 동원완구 조사 탄신 제116주기 봉찬법회와 온 겨레를 위한 산상기도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2011년 여름 워크숍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공동운영위원 미산 스님은 8월 7~13일 신정동 국제컨벤션에서 데이빗 브레이저(David Brazier) 박사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각목 스님 초기불교특강 각목 스님은 7월 25~30일 실상사 재가불자여름학림에서 '지금 다시 실상의 길에 서서'를 주제로 초기불교 특강을 진행한다.



한국불교법사대학 티베트 세미나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 스님은 7월 3일 동국대 사회과학관에서 티베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홍신 교수 영사초청법회 김홍신 건국대 석좌 교수는 7월 16일 동산불교회관에서 '불교의 행복론과 인생사용설명서'를 주제로 연했다.



전국염불만일회 14차 염불정진대회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은 8월 19~21일 평창 월정사에서 제14차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한다. (02)732-1206



동국대, 지멘스 헬스케어와 인재양성 MOU 체결 김희욱 동국대 총장은 지멘스 헬스케어·의료기기분야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 협약 양해 각서(MOU)를 7월 18일 체결했다.



민병덕 제11대 군불교후원회장 취임 민병덕 국민은행장이 제11대 군불교후원회장에 7월 8일 취임했다. 민 회장은 대전 방문과,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불자이다.

<인사> 비구니 종회의원 상화 스님 추천

제15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로 경주 금련사 주지 상화 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7월 13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추천된 상화 스님은 8월 5~7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자 등록과 자격심사를 거쳐 19일 예정된 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이 확정된다. 조동섭 기자

순돌 아빠가 노인영화제 홍보합니다



임현식 씨, 제4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위촉

“영화에는 초년·중년·노년이 따로 없습니다. 청소년 같은 사람도 담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정 진하게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형님, 누님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영화제가 아니라 ‘우리 영화제’입니다. 하하하.”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정원)는 영화배우 임현식 씨(65·사진)를 제4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7월 12일 위촉했다. 올해 제4회를 맞는 서울노인영화제는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고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영화제다. 만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영화를 만들어 출품한다. 지난해부터는 ‘노인’을 주제로 한 젊은 감독들의 영화도 출품 가능해져 ‘미디어’를 매개로 세대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홍보대사에 위촉된 임현식 씨는 “홍보대사를 맡아달라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 웬만하면 것은 사양해 왔다”고 말했다. 임 씨는 어르신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흔쾌히 서울 노인영화제 홍보대사를 수락했다. “벌써 4회째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장비를 쓰시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출품작을 보지 못했는데 꼭 보고 싶습니다.”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에는 임현식 씨를 보러온 많은 어르신 팬들이 강당에 가득했다. 임현식 씨는 “저도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대한민국 공식 노인인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직도 밤샘 촬영을 하고 동료배우들과 맥주를 마시곤 한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

다. 여기 계시는 형님, 누님들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 참 좋다”고 말했다. 임현식 씨는 홍보대사로서 자신이 만나는 방송 관계자, 배우 분들에게 서울노인영화제를 널리 알리 계획이다. “이런 영화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영화제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영화제 홍보에 적극적인 의욕을 나타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정원 스님은 “배우 임현식씨는 모든 세대에 사랑받는 국민배우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노인영화제 이미지에 적격”이라며 “제4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실 배우 임현식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인미디어 문화 활성화와 적극적인 신 노인상 확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글=천진영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업과 협약 KT, 대명콘도 등과 산학협력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가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나선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KT와 7월 14일 11시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KT와 'Smart Campus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모바일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 스마트 캠퍼스 인프라 구축, △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모바일 교육환경 조성 △ 인적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 IT 산업발전에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임산부 권리 보호 사업을 주관하며 동국대경주병원(병원장 이경섭)과 경주 대명리조트(대표이사 조현철)와 함께 임산부 권리 보호를 위한 시설 마련에 나선다. 동국대경주병원은 가장 먼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고 2층 로비에 임산부 전용 휴게실, 임산부 전용 계산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설거지 할 때 불려요

찬불가 메들리 음반 발매

“찬불가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포교를 앞 당기는 길입니다.”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이사장 하운주(55·사진) 씨가 찬불가 메들리 앨범을 발표했다. 1980년대 ‘당신은 나의 운명’ ‘춘몽’으로 인기를 끌던 가요 가수가 14년 만에 음반을 내놓게 된 것.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가수생활을 접었던 그가 불교 포교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하운주 씨는 “기독교인들은 일상에서 꽃노래로 늘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데 불교는 범패만 삼귀의, 정법가만 부르는게 전부이다. 불교음악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부들이 설거지 할 때, 합창단이 없는 절에서 스님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컴퓨터 음악으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15곡이 수록된 하운주 씨의 새 앨범 <영혼의 울림>은 △향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예불가 △한마음 있음이여 △길을 갑니다 등 불자들이 자주 부르는 찬



불가 합창곡을 메들리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그의 히트곡 ‘당신은 나의 운명’도 수록했다. 하운주 씨는 가수 남강수 씨와 불자가수회를 창립했으며 불교방송 찬불가 지도강사 1기 출신이기도 하다. 하 씨는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회원은 150명 정도다. 현재 활동을 거의 안하고 행사 때만 모이는 정도”라며 “이번 앨범 발매가 예술인 불자들이 활동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861-1612 이아은 기자

죽음은 끝이 아니다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강의

“최근 자살률이 높은 것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화일)은 7월 10일 참좋은우리절에서 250여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춘천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 오진탁 교수(사진) 초청 “웰 다이잉(Well dying) -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오진탁 교수는 현대인의 잘못된 죽음관을 진단하고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죽음 또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삶과 죽음은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삶,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모두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죽음에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 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민 기자



오진탁 교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아주 없거나,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이어 오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죽음을 생각하고 지나간 삶을 후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아는 불자라면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동국대, 2011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 우승

2011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동국대가 연세대를 1대 0으로 꺾고 우승했다. 7월 12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 경기에서 동국대는 후반 25분 공격수 추평강(체육교육과 3학년)의 결승골에 힘입어, 10년 만에 우승을 노리던 연세대를 1대 0으로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8강전에서 고려대를 3대 0으로 완파하는 데에 1골 1도움을 올리며 큰 공을 세운 188cm의 장신 공격수 추평강은 탁월한 위치선정과 적극적인 공격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추평강의 결승골 이후에도 동국대는 몇 차례 연세대의 골문을 위협했다. 이에 연세대도 공격의 끈을 놓지 않았다. 후반 39분 연세대는 결정적인 프리킥 찬스를 잡았으나 골문을 살짝 비껴나가며 동국대의 높은 수비벽을 넘지 못했다. 동국대 김종필 감독은 “사상최초 전국대회 2연패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지금까지 고된 훈련을 잘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Buddhist academic books. Title: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나 총서>. Lists 11 books including 'History of Buddhist Studies', 'Formation of Buddhist Law', 'Buddhist Studies in Korea', 'Introduction to Buddhism', 'Buddhist Studies in the East', 'Buddhist Studies in the West', 'Buddhist Studies in the Future', 'Buddhist Studies in the Present', 'Buddhist Studies in the Past', 'Buddhist Studies in the World', 'Buddhist Studies in the Mind', 'Buddhist Studies in the Heart'. Includes contact info for Unjusa Publishing Co.